

공주시, 2025년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행사 개최

도시별 평생학습도시 우수 프로그램 성과 공유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행사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2025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71회 백제문화제 기간을 맞아 공주시 행복누림과 주요 행사장에서 열렸으며, 전국 평생학습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행사

행사에는 공주시를 비롯해 양구군, 은평구, 수원특례시 등 4개 도시 대표단과 평생학습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지난 4월 멕시코를 함께 방문하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서 국제 협력 경험을 공유했던 도시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제71회 백제문화제를 함께 관람하며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평생학습과 지역문화의 연계 가능성을 체감하고 이어서 각 도시가 추진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주시는 이번 행사가 네트워크 도시 간 상호 학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동력이 되는 동시에, 백제문화제와 연계해 공주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평생학습은 지역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 도시들이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학습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